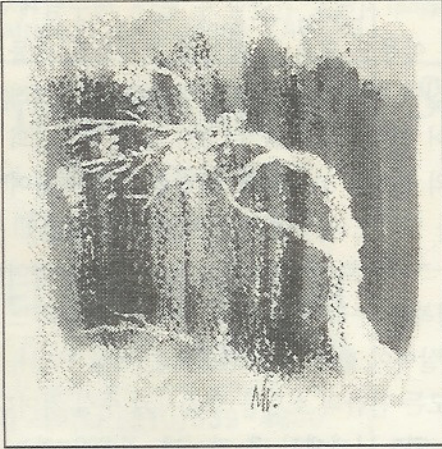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5주일(성모성월)
제29권 24호(나해) 2009 · 5 · 10

[묵상]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요한 15,4)

과일의 열매가 나무줄기에 열리지 않으니
나뭇가지에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선 수분 공급이 잘 돼야 한다.
적당한 거름으로 된 좋은 토양이 필요하다.
물론 여름 내내 강한 햇볕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일이 있다.
열매를 맺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간과하기 쉬운 진리다.
우리가 나무를 말할 때 가지는 웅당히 나무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구원에 비유하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철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농부에 의해 가차 없이 전지(剪枝)를 당하듯
주님 안에 머무르지 않는 자는
아무도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그것으로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신다.(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9:00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한숙이 모니카, 김소천 마리아, 엄은섭 도로테오 (생)조지 가보라, 김풍길 바오로와 모니카 가정, 홍 관
주 일 낮 미사	(연)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이금순 마리아, 임계순 김인영 베드로, 윤춘의 스콜라스티카, 이영자 마리아, 이상현베드로, 황옥분, 김종렬 아가비도, 김동욱 요아킴,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김시형 시릴로, 김서분 마리아 (생)박재훈 제임스, 이광웅 요셉, 권세은 아나스타시아, 이석제 베드로와 김화경 스텔라 가정, 이윤조 글라라, 김문수 미카엘과 용희 가정, 김혜영 사브리나, 오세천 바오로와 도미니카 가정, 조영우 스테파노, 조지선 레지나, 나경홍 데보라와 다카하시 토시오, 이재숙 테레사와 이재웅 안드레아와 혜선 안젤라 가정, 장현숙 발바라, 온천관광에 도움주신분들과 봉사자들, 홍석인 채칠리아, 구마리아네 수녀, 박상대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the Apostles) 9,26-31
화답송	◎큰 모임에서 나의 찬미도 주께로서 오도다. <전례성가 72, 부활제5주일 나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내 서원을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 배부르게 먹으리이다. 주를 찾는 사람들이 당신을 기리며, 너희 마음 길이 살라 말하리이다.◎ ○땅이란 땅끝마다 돌이켜 야훼께 돌아오고, 만백성 온갖 족속이 당신께 절하오리다. 땅속에 잠든 이들이 홀로 주님을 흠숭하오리다. 흠속으로 가는 자들이 모두 다 주 앞에 굽히오리다.◎ ○주님을 위하여 내 영혼은 살고, 나의 후에는 당신을 섬기며, 미래의 세대에게 주를 들어 말하오리다. 주께서 이같이 하셨다 이르며, 태어날 백성에게 그의를 전하오리다.◎
제 2독서	요한 1서(1 John) 3,18-24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복음	요한(John) 15,1-8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60	169
봉헌	270	186,265
성체	소원	284,300
파견	327	어머니의 마음

27.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끝)

▶ 하느님 나라의 완성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 자라고 있는 하느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자 다시 오시리라 굳게 믿으며 복된 희망을 가지고 그 날을 기다린다. 그러나 그 시기는 인간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마르 13,32)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라.”(마르 13,33) 하신 예수님의 분부대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그 날을 잘 준비하여야 한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롭고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세상과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어 모든 인간의 소망을 충족시켜 주실 것이다.

이 세상 삶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며, 죽음은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날마다 삶을 반성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CBCK 제공 - 끝)

☞지난 2007년 8월 5일부터 시작한 ‘간추린 가톨릭교리’가 오늘로써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공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교가 필요한 우리
2.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
3. 한국 천주교회
4. 천주교 소개
5. 성서란 무엇인가?
6.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7.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8.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을 믿습니다.
9.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0.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11.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12.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습니다.
13. 선교하는 교회
14. 천주의 성모 복되신 동정 마리아
15. 은총의 샘인 성사
16. 입문 성사 1 -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17. 입문 성사 2 - 성체성사
18. 치유의 성사 -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19. 천교에 봉사하는 성사 - 성품성사와 혼인성사
20.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
21.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삶
22. 새로운 삶의 기준들
23. 인간 생명의 존엄성
24.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25.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26.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27.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이다

우리나라에 ‘포도나무’가 들어오고 포도 재배가 자리 잡는 과정에 선교사 신부님들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지금의 안성(安城) 포도가 프랑스 신부에 의해 번식되었고, 1910년대에 지금의 대학로가 자리 잡은 동숭동 일대는 넓은 포도원 농장이었다. 선교사들은 포도 농사를 통해 가난한 교회의 살림을 꾸려갔던 것이다. 이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백성에 대한 목자적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

오늘 복음에서 농부인 하느님 아버지와 참포도나무인 예수님 사이에(1절), 그리고 포도나무인 주님과 그 가지인 우리 인간 사이에(5절) 이 사랑이 깊게 배어 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구세사 안에서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인간은 광야에서 마구 자라온 야생 포도나무와 같다.(이사 5,1-7) 하느님은 이 포도나무를 지극 정성으로 키우고 돌보아 주시지만 그 결과는 늘 실망과 후회뿐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걸어온 기대와 희망을 성취하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1절)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운명을 담고 있다. 포도 농사꾼은 겨울에 죽은 가지들을 잘라내고, 이때에 좋은 나뭇가지도 전지(剪枝)하는데, 이는 수액을 모으고 많은 포도송이를 소출해 내기 위해서이다. 이런 가지치기가 없을 때 포도나무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자랄 뿐이다. 농부들은 가지치기를 할 때 포도나무가 아파서 운다고들 말한다. 포도의 수액은 나무의 상처가 아물기 전까지가 가장 많이 흘러내린다.

어디 그뿐이라?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맛깔진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부서지고 으깨어져야

한다. 예수님 자신이 이런 운명을 사셨다. 십자가 나무 위에서 피흘리는 참혹한 고통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한 포도주가 되셨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마르 14,25)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 자신인 참포도나무에서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서 마실 새 포도주가 빚어진다.

하느님과 인간이 이루는 일치의 기쁨과 행복을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설명한다. “향기로운 포도주를 마시는 하느님과의 친교가 영혼 전체 안에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것이며, 영혼이 하느님 안에 변화되어 사랑하는 님(하느님)이 나를 당신의 사랑 안에 두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마시게 하신다.”(영적찬가 26)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하고 여덟 번이나 반복해서 호소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4절)는 말씀은 바로 기도생활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 기도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신앙행위가 되어야겠다.

이는 주님이 내 안에 머무르시도록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7절)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의 정신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음미하고, 기억하고, 갈망하고, 관찰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구요비 읍 신부 | 프라도회 한국 책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정미영 미카엘라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혜경 레나타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P.V. 1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이호미 엘리사벳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김교복 레오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박희자 마리아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5 월
성모성월

◆ 성모의 밤 : 29일(금) 오후 7시30분 성전

- 각 단체 및 개인의 꽃 봉헌과 초 봉헌이 있습니다. 문의 : 전례부장 김명숙 루실라
- 준비물 : 묵주, 개인초, 가급적 한복착용

◆ 제16차 백삼위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봄이 한창 무르익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매년 백삼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체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체육대회를 갖습니다. '가족한마당' 이름으로 마련되는 이 행사에 빠짐 없이 참여해 한가족 한공동체로서 특별한 하루를 봉헌합니다.

- 5월17일(주일), 낮미사(오전 10시) 후 운동장
- 진행: 대건회
- 구역별 팀구성 : 청팀-토런스 동, 서, 북구역
백팀- 토런스 남, 하버/카슨, P.V.구역
- * 주일학교 청팀 : 1,3,5,7,9,11학년(청색 티셔츠 입고 오기)
백팀 : K,2,4,6,8,10,12학년(흰색 티셔츠 입고오기)

- 식사 : 각 구역별로 준비
- 종목 : 피구, 오세미턴지기, 물풍선나르기, 축구(어린이/어른) 릴레이, 짝짓기, 줄다리기

▶ 도네이션 문의 ☎(310)569-0482 오세원 사목회장

◆ LA 대교구 Virtus Facilitator 교육 연기

- 5월23/24일로 잡혔던 Virtus 교육 프로그램이 LA대교구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되었습니다. 6월말 이전, 새 교육 일정이 잡히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문의 :청소년 분과장 강인모 테오도시오 ☎(415)730-4585

◆ 최영신 프란치스코 형제의 종신부제 서품을 축하합니다.

- 서품식 : 6월13일(토) 오전 9시
- 주례 : 로저 마호니 추기경
- 장소 : LA 대교구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CA 90505)

- ☞ 초대권과 주차료가 필요합니다. 참석하실 분은 5월15일 까지 신청해주십시오. 성당 사무실 ☎(310)326-4350, 최숙 클라라 ☎(310)210-8188 E-mail ; clara@uri-us.com
- 수품기념 감사미사 : 6월14일(주일) 오전 11시, 본당

◆ 제18차 남가주 한인 선택주말 참가자 모집

- 일정 : 6월26일(금)~28일(주일)
- 대상 : 22세~35세 미혼 남녀 * 참가비 : \$200
- 지도 : 김두진 바오로 신부(예수고난회)
- 장소 : Mater Dolorosa Retreat Ceter
- 신청서 : 본당 사무실 / lachoiceweekend@gmail.com
- 문의 : 총대표 김현철 아우구스티노 ☎(310)987-8008

◆ 백삼위 본당 청소년 보호위원회(Safeguard the Children Parish Committee) 구성

- Chairperson : 송종두 요한
- Member : 신부님, 수녀님, 총회장, 부회장 1명, 총무부장, 청소년분과위원장, 주일학교 교장, 한국학교 교장, 자모회장, 청년회장, 대학부 회장, 주일학교 학생대표, 사무장

◆ 백삼위 대학부 '파첸(PACEM)'창단

본당 대학생 신자들로 구성된 'PACEM'(평화)이 지난 주에 탄생했습니다. 이 그룹은 주일학교와 매론청년회 사이의 세대들로서, 앞으로 대학진학 후배들을 돕고 본당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젊은 신심단체로 활동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관심과 함께 대학생들의 멤버 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 가입 문의 : 회장 황선홍 그레고리오 ☎(424)903-6637
홍보담당 배용우 이나시오 ☎(310)528-5240

◆ M.E. 기금모금 음식판매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백삼위 본당의 M.E. 발전을 위해 지난 주일 마련한 기금모금 음식판매에 협조해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5월10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4)
- 5월17일(주일) : 본당 체육대회, 구역별 점심 준비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구자운	국세찬	금영도	김관기	김교복
	김기정	김대우	김병철	김병학	김선제	김옥보
	김 용	김정렬	김정순	김종환	김주량	김진엽
	김충섭	김형순	노찬술	노혜숙	민기남	민봉식
	민찬기	박상준	박정희	박준구	박형두	박희자
	방정복	백재만	변복순	손춘화	송기철	안재만
	오일순	오진희	우영희	유희연	이귀분	이근모
	이상석	이상철	이석제	이연행	이용식	이인두
	이태옥	장수창	장숙환	정동호	정상봉	정지숙
	조영희	조운영	주대종	차병용	차인수	한혁수
	한혜숙	황학수	영희가보라	합계 : \$5,790		

미사헌금 : \$3,051.75

2차헌금 : \$1,050

성전헌금	구자운	국세찬	금영도	김관기	김교복	김기정
	김대우	김병학	김선제	김옥보	김 용	김종환
	김주량	김진엽	김충섭	김형순	노찬술	노혜숙
	민기남	민봉식	민찬기	박상준	박정희	박준구
	박형두	박희자	방정복	백재만	변복순	손춘화
	안재만	오일순	오진희	유희연	이근모	이상석
	이상철	이석제	이용식	이태옥	장수창	장숙환
	정동호	정상봉	정지숙	조영희	조운영	주대종
	차병용	차인수	한혁수	한혜숙	영희가보라	
	합계 : \$4,158.85					

감사헌금 : 유지숙

리사이클링 수입 : \$91

주일학교 소식

◆ 학생 전진성사(10~12학년)

- Reflection : 5월 14일(목) 오후 7시
- 전진성사 일시 : 5월15일(금) 오후 7시
- 주례 : Sartoris 주교 * 장소 : St. Margaret Mary 본당

◆ 주일학교/한국학교 휴강 안내

- 일시 : 5월17일 본당 체육대회날(학생미사 없음)
5월24일 메모리얼데이 연휴(학생미사 있음)

◆ 첫영성체

- 학생고해성사, 리허설, 학부모 피정 : 6월6일(토)
오전 9시30분~오후1시30분(점심제공)
- 첫영성체 예식 : 6월7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중
- 신청 :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세례증명서 첨부)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 Youth Conference(고등부 신앙대회)

- 일시 : 7월24일(금) 낮 12시 출발~
7월26일(주일) 오후 3시 도착
- 장소 :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참가비 : \$150(5월31일까지), \$175(6월1일 이후)
- 신청 :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남가주 소식

◆ 성령강림 대축일 전야제

- 일시 : 5월30일(토) 오후 5시~10시, 남가주 전신자 대상
- 강사 : 배광하 치리아꼬 신부(춘천 겐사마니 피정의 집 원장)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 내용 : 찬미/미사/특강/안수
- 문의 :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총무 ☎(213)435-7570

◆ 이냐시오 영성 1일 피정

- 일시 : 5월30일(토) 오전 9시30분~오후 5시
- 주제 : 관상하는 삶, 성찰하는 삶
- 강사 : 한국어 황정연 신부(예수회), 영어 김요한 Br.(예수회)
- 장소 : 로올라 매리마운트 대학
- 신청 : 전아그네스 ☎(213)507-1144

◆ 제22차 성령안의 생활 세미나

- 일시 : 6월4일(목)~6월7일(주일)
- 장소 : 예수고난회 피정센터 *강사 : 배광하 치리아꼬 신부
- 참가비 : \$270(1인1실 선착순 60명)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 회장

이번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본당 체육대회	오전 10시 주일미사 후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5/17(주일) 본당 체육대회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5/17(주일) 본당 체육대회
	3	한길선레 스펠라스타카 218-7824	한길선레 스펠라스타카 782-1025 5/15(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5/17(주일) 본당 체육대회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5/17(주일) 본당 체육대회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5/17(주일) 본당 체육대회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5/17(주일) 본당 체육대회
	2	박희자 마리아 791-3703	안혜진 세레나 325-6982 5/13(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켄마 214-2290	강은진 켄마 214-229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5/17(주일)본당 체육대회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5/8(금) 오후 7시30분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혜경 레나타 808-5005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송근섭 발렌티노 (213)268-8455 5/9(토)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오석만 사무엘 5/8(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이문중 파오로 541-7860 5/9(토) 오후 7시
	4	장숙경 도미니카 541-0767	이귀란 아네스 5/14(목) 오전 10시

◎ 백삼위 교우님들께 드리는 종신부제 부부의 글 ◎

+ 찬미 예수님!

백삼위 한인성당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신 프란치스코와 최숙 클라라 부부입니다.

우선 본당 주보를 통하여 여러 교형자매님께 인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금 Los Angeles 대교구의 종신부제과정에 있습니다. 종신부제과정을 시작한지가 어느덧 5년이 다 지났네요. 그러나 지금부터 남은 한 달반 동안이 지나온 준비기간보다 훨씬 더 힘들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약 6년 전, 그러니까 2002년 10월 우리가 어떤 소명을 받고 본당신부님께 상의 드린 후, 본당신부님의 추천을 받아 입학허가 신청을 하고 약 1년 반을 기다리는 동안, 열두어 번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인터뷰도 서너 차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전문가에게 의뢰되어 약 4시간에 걸쳐 인성검사도 받고 다시 인터뷰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신체검사, 신용조회, 지문날인 등을 마치고 나니, 비로소 입학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때가 2004년 5월이었고, 6월 초 입학 허가자 예비소집을 받았으며, 그 후 곧이어 2박 3일의 피정에 들어갔습니다. 2004년 9월에 학기가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2007년 12월에 독서직을 받았고, 2008년 9월에 시종직을 받았으며, 오는 2009년 6월 13일 토요일에 종신부제품을 받게 된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사실 드러내놓고 말은 안했지만, 침묵 가운데 변신(變身)을 하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종신부제 과정을 그것도 부부가 함께 5년씩이나 준비한다는 것이 어찌 저희 부부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사이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질타와 오해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양면적인 일들이 어디 하루, 이틀 또는 한 달, 두 달 아니 더 나아가 일 년, 이 년 사이에만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온 인류의 역사 안에서, 또한 성교회 역사 안에서 조차도 항상 반복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희 부부의 맘에 드시지 않는 면들도 어여뻐 보아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익히 배우고 겪어 알고 있습니다.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입학이 허가되어 첫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무엇인지 모를 힘이 저희의 발을 걸고 역작용하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마지막 준비과정에서 또 한 차례 격한 시험이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5월 3일 일요일부터 5월 8일 금요일까지 부제수품 전 눈물어린 마지막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부제서품을 앞두고 남은 기간동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저희는 많은 것을 버렸고, 많이 변했고, 이제 모든 것을 하느님께 걸었습니다. 저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참으로 착하고 선한 종신부제 부부가 되어, 항상 성교회를 위하여, 하느님의 백성이신 여러분을 위하여, 봉사하며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마태 20:28), 저희는 “섬기는 사람으로 여러분 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루카 22:27 참조)

여러분께서도 저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고 천주 성모님께도 간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영신 프란치스코 & 최숙 클라라 올림